

가을 힐링 새로운 명소 ‘나주 메타세쿼이아길’

산림자원연구소 나주수목원

사계절 변신하며 색다른 매력
휴식+자연학습장 ‘일석이조’
데이트 코스로도 입소문
식물원·장미공원 등 볼거리 풍성

■ 나주수목원 가는 길



“사랑하는 이와 함께 ‘메타세쿼이아(Metasequoia)’ 길을 걸어보세요~.”

메타세쿼이아 길하면 담양이 먼저 머리에 떠오른다. 하지만 나주에도 멋스러운 메타세쿼이아 길 있다. 나주 남평읍에서 전남도 농업기술원과 국립 나주병원을 지나면 바로 나주 수목원에 닿는다. 빗가람 혁신도시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나주 수목원의 정식 명칭은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나주수목원’이다.

지난 1998년 완도 난대수목원과 통합해 2008년 지금의 면모를 갖춘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기후변화 대응 및 생물자원 보전·증식 연구 등을 수행하는 곳으로, 왕철나무와 가시나무 등 국내최대 난대 숲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 도민의 여가선용과 자연학습장으로 산림 치유의 숲 조성과 유아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살아 있는 화석식물, 메타세쿼이아=나주 수목원의 가장 대표적인 곳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이다.

이곳 메타세쿼이아 길은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보다 길이나 규모 면에서 작다. 하지만 나무의 수령이 젊어 수형이 뛰어나고, 완만한 경사의 길이 이어져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신비감을 준다.

나주 수목원 메타세쿼이아 길은 예능 프로그램인 ‘박 2일’과 드라마 ‘아이리스 2’, ‘프레지던트’, 뮤직비디오, CF 등에 자주 등장하는 나주의 새로운 명소이다.

수목원 입구에서 들어서면 수목원 중심부를 가로질러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가 병정처럼 늘어선다. 500여m 길이의 메타세쿼이아 길은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입소문이 나 있다. 메타세쿼이아 길을 걷다 보면 여러 종류의 꽃나무와 다양



나주시 산포면 산재리에 위치한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나주 수목원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병정처럼 늘어선 메타세쿼이아 길은 철마다 옷을 갈아입으며 색다른 느낌을 준다.

한 식물에서 품어져 나오는 향기가 기분을 상쾌하게 한다. 메타세쿼이아는 마지막 빙하기 이후 사라졌다 1940년대 중국에서 집단 군락이 발견된 ‘되살아난 화석’이란다.

메타세쿼이아 길 왼쪽으로는 ‘우드(Wood)침로 숲내음 길’과 ‘삼나무림 숲내음 길’이 조성돼 있다. 숲 내음길에 접어들면 만발한 하얀 아기 동백꽃이 늦가을의 방문객을 반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이지만 흔히 볼 수 없는 무궁화를 모아 놓은 전시길도 있다. 무궁화 포토존을 지나 치유의 길이 만나는 메타세쿼이아 길 중간에 다다르자 삼나무림 아래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평상들이 설치돼 있다.

또 산책길 중간 중간 마련된 쉼터는 여름에 나무향기를 맡으며 더위를 식히기 안성맞춤이다. 메타세쿼이아 길 오른쪽에는 소나무 숲과 황토

포장, 풍자갈로 조성된 ‘치유의 길’이 있다.

‘치유의 숲’이란 산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회복한다는 뜻이다.

또 향나무 산책길과 농익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감나무는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

수목원 한쪽에 조성된 장미공원에는 붉은 장미꽃, 수세미 열매, 백향열매 등이 주렁주렁 열려 있어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사계절 변신하며 한 폭의 수채화 연출=나주 수목원 메타세쿼이아 길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양한 변신을 거듭한다.

꽃피는 봄이면 수목원 다양한 꽃나무마다 나비와 벌이 날아와 방문객을 반긴다. 특히 가로수 길을 따라 보랏빛 꽃으로 물들인 맥문동은 방문객을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는 듯하다.



숲내음길에 하얗게 만발한 아기동백꽃.



장미정원에 피어 있는 장미꽃.



여러종류의 묘목을 구경할 수 있는 식물원.

또 여름에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사이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대나무로 만든 평상에서 누워 느끼는 나무향기는 뇌를 정화시킨다.

특히 가을이면 주변의 노란 은행잎과 조화를 이루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는 한 폭의 수채화이다.

더욱이 하얀 눈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를 덮는 겨울은 사진작가들의 명소이기도 하다.

‘메타세쿼이아 길에서 산책하기’ 프로그램은 나주를 찾는 가족과 연인들에 필수코스 자리 잡고 있다. 나주 수목원은 지친 몸과 마음에 휴식을 줄 뿐만 아니라 자연 학습장으로도 훌륭한 곳이다. 산책길을 걷다 보면 여러 팻말을 마주치게 된다. 소나무의 유래, 나무도 임신한다는 사실 등. 방문객들이 메타세쿼이아 길에서 마음의 힐링을 하고, 담으로 지식을 얻고 가는 보너스이다.

더욱 재미있는 사실은 식물도 임신을 한다는 것. 나무의 임신기간은 배(胚)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종자가 완성되기까지의 기간을 가리킨다. 보통의 나무들은 꽃이 피고 종자가 성숙하기까지의 약 3~8개월 정도가 임신 기간이란다.

임신 기간이 가장 짧은 나무는 버드나무, 포플러 등으로 한 달이 채 걸리지 않는다. 또 소나무, 잣나무, 상수리나무는 꽃이 핀 해에 종자를 얻지 못하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깊어가는 가을, 가족과 연인이 손잡고 광주 근교에 위치한 나주 수목원 메타세쿼이아 길을 걸으며 행복과 사랑을 키워 가면 어떨까한다.

/나주=글·사진 송영철기자 ycon@

나주시 기업유치 올인

혁신산단 선분양...300개 유치 목표

나주시가 기업유치에 ‘올인’한다. 나주시는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나주 혁신산단의 선분양 여부에 따라 나주 미래발전의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기업 300개 유치를 목표로 설정했다.

시는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3월 1부서 1기업 투자유치 보고회 및 투자유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혁신산단을 비롯한 시 산하 공직자 200여 명이 참석해 투자유치 총력 추진운동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강시장은 “투자유치는 민선 6기 시정의 핵심과제로, 올해는 ‘투자유치 총력추진의 해’”라며 “잘사는 나주 실현을 통해 나주의 운명을 바꿔 나가기 위해 공직자 모두가 투자유치에 행정력과 구성원 모두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또한 “기업 300개 유치 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1부서 1기업 유치 운동, 전 공무원의 투자유치 요원화, 기업유치 성과급 및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 등 투자여건 개선에 매진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시는 투자유치 공무원에게 특별 승급과 인사상 우대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편 나주 혁신산단은 동수동과 왕곡면 일원 178만5000㎡(54만평)에 조성중이다.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내년 5월부터 공장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송월동·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

산림청 녹색자금 지원사업 선정

나주시 ‘송월동 나눔숲 조성사업’과 ‘복지시설 나눔숲’이 산림청 녹색사업단 주관의 2015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5억3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나주시는 내년도 사업으로 나주역앞 미조성 근린공원 사유지(1.5ha)에 종(種) 다양성 구현을 통해 어떠한 생명체도 차별받지 않는 지속가능한 생태숲을 조성한다.

또 다도면에 있는 나주시 양로원에 치유와 체험·문화의 숲을 조성해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녹색복지 공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송월동 나눔 숲을 3가지 테마(마중 숲, 나눔 숲, 점어 숲)로 조성해 철도 이용객들에게 녹색복지 공간을 제공하고, 빗가람로의 가로수 녹색 네트워크와 영산강 하천생태를 연결하는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나눔 숲과 스포츠파크, 영산강 유채밭, 각종 축제 행사장 등이 어우러져 많은 방문객의 발길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주시 최명수 산림공원과장은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시가 추진하는 녹색 조성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 녹색사업단은 소외계층과 일반 주민에게 숲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실력 동신’으로
JUMP TOGETHER!

소통하는 대학, 실무에 강한 대학, 실천하는 대학

동신대학교가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중심
동신대학교
DONGSHIN UNIVERSITY

2015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교수초빙공고

[정년계열]

- 초빙분야(총 7명): 정보보호학과(시스템보안 1), 한의예과(병리·진단 검사의학 1), 간호학과(기본간호학 2, 성인간호학 1, 성인간호학-산업체 현장실무 1, 지역사회 및 정신간호학-산업체현장실무 1)

[비정년계열]

- 강의전담 초빙분야(총 3명): 물리치료학과(물리치료 2, 상담심리학과(상담 1)
- 외국인 초빙분야(총 5명): 아동영어교육학과(영어회화 4), 항공서비스학과(영어회화 1)

[서류제출기간 및 접수처]

- 기 간 : 2014. 11. 19(수) ~ 11. 21(금) 18:00까지
- 방 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우편접수는 마감 당일 18:00이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교무처 교무연구팀 (☎061-330-3024, 3025)

※ 자세한 사항은 동신대학교 홈페이지(http://www.dsu.ac.kr) 또는 동신대학교 교무처 교무연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